

베트남서 OLED 후공정 본격 확대 삼성D·LGD, 생산기지 고도화 가속

삼성D 베트남에 고기술 중심 투자
현지 엔지니어·전문인력 육성 추진
노트북용 OLED 모듈라인 대규모 구축

LGD 누적 7.9조 베트남 투자 지속
하이퐁 거점 활용 물류 효율성 강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후공정을 담당하는 베트남법인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가 OLED 중심의 사업 구조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디스플레이 생산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팜 호앙 손 박닌성 인민위원장과 면담하고 베트남 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닌성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신규 고기술 제품 투자와 현지 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전문 인력 양성 협력 등에서 지속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법인을 단순 생산 거점 유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법인을 단순 조립 인력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가·엔지니어 등 고숙련 현지 인력을 직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2026년까지 4조 1000억원을 투자해 충남 아산에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퐁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후공정을 담당하는 베트남에도 연 1000만개의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모듈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도 베트남을 주요 생산 기지로 키우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18년 15억달러, 2020년 7억5000만달러 투자를 집행한 데 이어 2024년 10억달러 투자를 결정해 누적 투자액이 56억5000만달러(약 7조 9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확정된 투자분은 2029년까지 단행된다.

이러한 투자 확대 배경에는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중소형 OLED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며 생산능력 확충이 불가피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이퐁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창흥, 스카이웍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 중국으로의 운송이 용이한 점은 이점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는 중국 광저우의 액정유리 장치(LCD) 공장을 매각하면서 일부 자금을 베트남 투자에 재배치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도 속도를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한 금액 2조 2446억원 중 5600억원을 베트남 공장에 투자해 모듈 공정 고도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퐁 법인은 지난해 250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5%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후공정 라인을 베트남에 두는 것은 세트사 공장 인근에서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며 “후공정은 패널을 모듈 형태로 조립하는 뒷단 공정으로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 대비 기술 유출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해외 생산 거점 확대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전면 배치

에너지·정유·석화 사업 재편 가속
70년대생 대표이사 대거 기용 확대

GS그룹이 허용수 사장과 허세홍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경영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오너 일가 3~4세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미래 에너지 전환과 정유·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GS그룹은 26일 부회장 승진 2명, 대표이사 선임 9명, 사장 2명, 부사장 4명, 전무 5명, 상무 18명, 전배 1명 등 총 38명 규모의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허용수·허세홍 두 부회장의 승진이다. 3세 경영인 허용수 부회장은 2016년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2017년 GS EPS 대표이사, 2019년 GS에너지 대표이사를 맡으며 그룹 에너지 사업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4세 경영인 허세홍 부회장 역시 GS칼텍스 싱가포르법인장, 생산기획공장장, 석유화학·유통유사업 본부장 등을 거치며 정유·석유화학 밸류체인 전반을 경험, 사업 구조 혁신을 주도해온 인물로 꼽힌다. 두 사람의 전면



허용수 부회장

허세홍 부회장

배치는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흐름 속에서 적극적 사업기회 창출과 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GS그룹은 또 이번 인사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직에 젊은 경영진을 폭넓게 배치했다. 김성원 GS글로벌 대표, 허철홍 GS엔텍 대표, 황병소 GS E&R 대표, 박민수 GS P&L 대표, 김옥수 자이C&A 대표 등 1970년대생 대표이사가 대거 기용됐다.

조직 운영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GS에너지,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의 핵심 인력을 자회사 사업 현장으로 전진배치했다. 본부와 현장 간 거리를 좁히고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인력 배치 전략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모비스, 임직원 혁신 아이디어 쏟아졌다

용인 기술연구소서 ‘엠피즈 페스타’
역대 최대 1170건 아이디어 총결산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한 기술연구소에서 ‘2025 엠피즈 페스타(M. Fields Festa)’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엠피즈 페스타는 현대모비스 국내외 임직원들의 기술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엠피즈 페스타는 아이디어 공모부터 수상작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매년 수백 건의 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되는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170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전화와 전

장, 사시·안전, 커넥티비티 등 모빌리티 핵심 분야 아이디어들이다. 지난해 아이디어 제안 건수보다 2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6년간 누적 아이디어 제안 건수는 무려 5600여 건에 달한다.

이날 엠피즈페스타 최종 본선 무대에는 임직원들의 많은 추천을 받고 유관 부서들의 자체 기술 검증 등을 거친 6개의 아이디어가 올랐다. 올해는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한 전기차배터리 소화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한 모터 열관리 기술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현대모비스 김동규 책임연구원은 “거창한 혁신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나 기능을 개선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중남미서 AI가전 판매량 40% 성장

세탁기 매출 80% ↑… ‘콤보’ 흥행
AI 라인업 확대 제품 경쟁력 강화
전력절감·스마트싱스 기능 호응

삼성전자가 중남미 시장 현지 맞춤형 인공지능(AI) 가전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AI가전의 중남미 누적 판매가 수량 기준 전년 동기대비 약 40% 성장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세탁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80% 가량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AI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고, AI 가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AI 홈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 스마트 가전 매출 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연평균 10% 수준으로 성장해 2029년에는 약 38억 달러에 이를 것



삼성전자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모델 사진.

/삼성전자

으로 추정된다.

높은 성장률의 배경에는 스마트 홈에 대한 중남미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스마트 가전 보급률이 낮은 영향이 있다. 2025년 기준 중남미 내 스마트 가전 보급률은 약 11%로 한국 63%, 미국 18%, 유럽 16%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시장에 ‘패밀리허

브’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건조기 등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한 최신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남미에서 인기가 높은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전자동 세탁기 등 중저가 가전까지 범위를 넓혀 중남미 AI 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AI 가전은 스마트싱스를 통해 가전제품의 사용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전기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요금에 민감한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스마트싱스의 AI 기반 에너지 절감 기능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 밀레네 고메스 디렉터는 “AI 기반 가전과 스마트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에서 ‘집’은 삶의 리듬과 요구에 반응하는 중심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AI 가전을 통해 중남미 스마트 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 ‘K-원팀’ 급부상

한달 만에 재실사… 韓 역량 주목
KSS-III·AI로 남기경쟁 앞서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조기 인도 능력과 디지털 기반 운용 기술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 ‘원팀’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 멜라니 졸리 장관과 필립 라포툰 주한캐나다대사 등 대표단은 24~2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잇달아 찾았다.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총리의 방문에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실사가 이뤄진 것으로, 오는 2035년까지 빅토리아급 4척을 퇴역

시켜야 하는 캐나다가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조달 속도와 인도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단은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Batch-II(한국형 잠수함 KSS-III 계열) 급 동시 건조라인을 둘러보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납기 역량을 점검하고, 방산·우주·에너지·광물 등으로의 장기 협력 구상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GRC에서는 잠수함·함정 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트윈·예지정비·관제 시스템 등 생애주기 관리 솔루션을 살펴보고 캐나다 해군의 운용 효율화·현대화 방향과의 접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CPSP는 한국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양자대결 구도다. /유혜은 기자 dhale@